

시립단체들 공연 해외서도 갈채 통기타·버스킹 다양한 축제 만끽



지난 13~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2017 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공연

올해 공연계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광주시립발레단과 광주시립창극단은 새로운 수장을 맞았으며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광주시립창극단은 해외공연을 진행하며 활발히 움직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만났으며 광주지역 곳곳에서는 수많은 축제가 열렸다.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광주 문화예술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향 상임지휘자에 김홍재 전 울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시립발레단 예술감독에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유영에 전 국립민속극원 예술감독,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정갑근 전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를 위촉했다.

김홍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지난 10월 광주시향 창단 41년만의 체코 프라하 스테타나 홀,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너하우스에서 첫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은 '광주 발레'의 세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최 감독 취임 후 첫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지난 13~15일 총 4회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유영에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지난날 9~10월 취임 첫 정기공연인 '가무악의 빛'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조통달, 송순섭, 진유림, 제창 순 등 국내 최정상 명창, 명인, 명무 80여 명이 한 무대에서는 초대형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 지난 9월 광주·샌디아고 자매도시 15주년 기념 일본공연에서는 판소리, 무용, 가악, 타악, 단막창극 등 가·무·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광주의 여덟 번째 시립예술단으로 창단된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 9월28일 창단공연 '오페라 갈라'를 통해 광주시민과 첫 만남을 가졌다. '카르멘',

시립오페라단 창단·시립극단 파행

IT·사투리 점목 ACC 공연 돋보여

정명화·손열음·신지아 공연 매진



프린지페스티벌 공연 모습.

'아이다', '나비부인' 등 오페라 명작을 짜임새 있는 갈라로 구성했고, 세계적인 지휘자 리신 차오, 소프라노 선 쉐웨이, 소프라노 임세경, 바리톤 한명원 등이 한 무대에 섰다.

한편 광주시립극단은 지난 2012년 재창단 직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예술감독 박모(64)씨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시립극단은 지난 4월 ACC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 '연극 맥베스411'을 끝으로 계획한 공연이 줄줄이 무산됐고 '개점휴업'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진행한 다양한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올 상반기 중에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애니메이션, 배우들의 연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 '마술피리'가 돋보였다.

지역 배우들과 함께하는 공연인 '맥베스 411'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잇따랐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전라도 배경과 토착어 등 지역 특성을 살려 2017년판으로 새롭게 만든 밀실 잔혹극이다. 이밖에 장제작 음악극 '푸른 수염의 시간', 미국 극단 '우스터 그룹'의 '비·사이드(B-SIDE)' 공연 등도 인기를 끌었다.

테너 류정필, 아나운서 손미나, 타악 그룹 '공명'과 '땀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피아니스트 박종훈 등이 참여해 공연과 토크를 선보인 'ACC 브런치 콘서트', 라이브러리 파크 블랙박스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블랙박스 시네마'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광주일보사 창사 65주년,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된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공연은 일찌감치 표가 매진되며 큰 호응을 얻었고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29)은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광주팬들을 만났다. 올해 반 클라이번 대회는 대륙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개국 30세 이하 젊은 피아니스트 30명이 가랑을 겨뤘다. 선우예권은 결선 무대인 9일 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했다.

올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눈길을 끌었다. 전국 유일 통기타 라이브 카페거리인 '광주사직통기타거리'에서 펼쳐진 공연은 수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팝, 트로트, 최신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 '2017 음빛고을거리'도 열렸다.

또, 올해 100회를 맞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의 공연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남북통일·세계평화'에 대한 공언을 한 유엔합창단의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또, 아프리카 댄스 파티 'Make Your Soul Free!',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등도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0개월간 금남로 도심에 문화 향기로 뒤덮은 '프린지 페스티벌'도 올해 눈에 띄는 행사였다. 매일 둘째 주, 넷째 주 5·18문화광장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즐겼다.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한 양림동 일원은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양림국제제즈페스티벌'이 양림동 일원에서 열렸으며, 한희원 미술관, 율희매관, 다형다방 등 마을 곳곳 문화공간과 카페는 청년아티스트들이 참여해 R&B, 재즈, 통기타 등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퓨전 음악회 '이음' 26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46회 이음(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이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사)문화예술협회가 한 해 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흰 눈 곁에 쌓이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익숙한 명곡들을 재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퓨전앙상블 불랑이 '아리랑 연곡'과 'Isn't She Lovely'를 연주하고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이 최호섭의 '새월이 가면'을 연주한다.

또한 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유정석, 바리톤 이형기, 손승범이 '시간에 기대어', '마중', 'Una Furtiva Lagrima' 등을 노래하면서 겨울밤을 장식한다. 문의 062-384-203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나주 귀양살이서 터득한 정도전의 민본정치

'김노금의 역사동화' 출간

내년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앞두고 수필가이자 아동문학가로 활동 중인 김노금(60)씨가 최근 '김노금의 역사동화 정도전과 나주' (사진)를 펴냈다. 이번 출판은 나주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작가가 말기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 완관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작가는 정도전이 나주 출신은 아니지만 나주 역사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심경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동화는 조선 초기 정치가이자 사상가, 혁명가인 삼봉 정도전에 삶과 사상에 초점을 둔다.

정도전은 고려 말 벼슬길에 올랐다가 당시 실권자인 이인일 일파의 미움을 사 나주 귀양부곡으로 귀양오게 된다. 그러나 조선의 아침을 열었던 삼봉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은 모두 나주 귀양살이 3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삼봉이 나주인들과 교류에서 터득한 백성 사랑은 민본정치를 실현하는 밑바탕이 된다.

저자는 "상처입은 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 위대한 사상가로 우뚝 서게 한 나주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길 만한 이야기"라며 "새로운 천년을 향한 나주의 꿈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 동화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작가는 동화책과 아울러 이번에 '김노금의 의정단상'이라는 책도 펴냈다. 김 작가는 나주에 초 부회장, 고구려대 겸임교수와 동신대 외래교수로 후세 교육에 전념해왔으며 2017년 광주전남언론사 선정 한 풀뿌리 의정상을 받았다. 책 출간 기념회가 22일 오후 2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010-3944-787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문화프로그램 잇단 수상

'필름정거장' 장관상·전남문화재단 '야간작업' 문예위원장상

(취)다가 진행한 '필름정거장'이 지난 14~15일 제주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공유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필름정거장'은 '수요일N 영화(榮華)롭게 만원(滿員)극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이자 83년 동안 총장로 5가를 지켜온 광주극장과 영화의 집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진행했다.

필름정거장은 광주극장이 가진 특성이 잘 드러난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영화적 체험을

관객들에게 선사, '시네마테크'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필름정거장'은 연속지원을 받게 돼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야간작업' 프로젝트로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수상했다.

'야간작업'은 지난해 순천과 담양에서 추진했던 '양천리 야간작업' 프로그램을 목표와 강진지역까지 확대한 전남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